

문경 현리 농가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te Planing and Plan Property of a Farm Houses on Hyun-ri village in Mun-kyung

정명섭*

Chung, Myung-sup

곽동엽**

Kwak, Dong-yeob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farmhouse among the commons house. The subject of study are selected the seventeen farmhouse built 50-60 years ago at Hyunri in Munkyung. It was analyzed and classifie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lan and arrangement at a farmhouse. In concluding, their farmhouses are appeare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 With the arrangement of building and composition of plan, it was discovered that it connotes an idea of the confucian ideas from separ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space; men and women. Also, it was found that it has become to the rational separation of spaces from location of entrance, division of the outside space(Madang) and arranged space of inside at farmhouse.

Keywords : confucian ideas, farmhouse, separ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men & women)

주요어 : 유교적 관념, 농가, 내외공간의 분리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 전통건축 중 서민주택은 반가와는 달리 그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요인과 서민들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물리적 결정체로서 당시의 주거문화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건축역사학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 결과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민가연구는 문헌적 자료와 유구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임란 이후인 조선시대 후기에 편중된 경향이 많으며 조선 초기와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다. 이러한 시대적 편중성은 한국주거문화의 통시성을 규명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성과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조선시대 이후에 지어졌던 근세기 민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전후한 이 시기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붕괴로 인한 신분제도와 가족제도의 변화, 일제 수탈에 의한 농촌경제의 파멸, 산업화 및 근대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초래된 시기이기도 하다. 근세기 민가는 이러한 사회적 격변기를 고스란히 담아 내면서 전통민가와 현대주거를 이어 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민가들은 비교적 많은 수가 남아 있고 현재까지 주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생활 변화에 따른 주거형식의 변천을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가들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된 채로 도시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회원 상주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1) 한국건축역사학회(2003), 한국건축사연구 1-분야와 시대, 도서출판 발언, 247-248쪽

본 연구는 이들 근세기 민가 중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을 피해 당시의 형식을 비교적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민가들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하여 농가를 전수 조사하고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축적 특징을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주거유형에 대한 조사가 대상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국지적으로 미세하게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이 도외시되는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가는 그 지역만의 매우 작고 미세한 지리·기후적 특색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을을 단위로 한 광범위한 주거유형의 조사는 동일 집단내의 개별 주거유형 사이의 미세한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²⁾ 각 주거형식간의 상관성과 그 淵源을 풀어낼 유일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하고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농가들의 배치 및 평면형식을 분석하여 이들 속에 담겨진 건축적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이다.

이와 같이 한 마을을 전수 조사하여 주거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축적될수록 특정한 주거 유형이 지역적·환경적 차별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동시적 연관관계에 있는 현상학적 결과물임이 다시 한번 검증되게 되고 나아가서는 주변지역 주거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규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문경시 현리를 대상 마을로 정하였다. 이 지역을 선정한 중요한 이유는 첫째, 마을의 成村시기가 명확하고 조선후기까지 마을이 크게 확장되는 등 문헌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둘째, 근세기에 지어진 농가가 마을 전체 주거의 반을 점유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등 도시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점 셋째, 동성마을로 이루어져 있어 혈연적 관계가 주거의 동질성으로 이어져 그것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유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현리는 한때 100여 가구가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이 차츰 도시로 이주하고 현재는 48가구 127명만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마을의 주택 중 현대식 공법과 재료 등으로 지어진 집을 제외한 24채의 전통 목조 가구식 구조중 정자와 재실 3채를 제외한 21채의 순수 주거용 살림집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랑채와 안채를 별도로 갖추고 상류주택의 법식을 갖춘 3채와 정자의 부속채를 후대 살림집으로 개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1채는 농촌 민가를 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7채의 농가들이 연구대상으로 채택되었다<표 1 참조>.

이들 중 대다수의 집들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거나 집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건립년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을 노인들의 말과 집의 노후 정도, 구조방식을 종합해 볼 때 100년 전에 지어진 1채(사례2)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모두 50-6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농가들은 2002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조사와 그 후 세 차례의 보충조사를 통해 자료로 채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거 내에서 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변형된 부분들은 면담과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는 우선 대지와 집의 방위, 본채와 부속채와의 관계, 진입구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각 주거의 평면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즉 공간의 성격과 배열 그리고 연결양상 등을 통해 평면적 특성을 도출한 다음 그러한 특성이 배치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주된 초점이 배치와 평면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결국 방식과 건축재료 등 구조적인 특성은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II. 마을 개황

현리는 인천 채씨들이 모여 사는 동성마을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약 550년 전에 순천 박씨인 박효창이란 사람이 이 곳에 최초로 마을을 일구었다

2) 한국건축역사학회, 전게서, 274쪽

한다.

인천 채씨가 이 마을에 입향하게 된 것은 혼인을 통해서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순천 박씨의 사위인 채유부란 사람이 처가의 상속을 받아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채유부가 임진왜란 이듬해에 죽게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당시 채유부의 아들이었던 득호(선조 무인년 1578년 8월 11일 생)를 실질적인 입향 개기조로 삼게 되었다 한다. 채득호는 한때 중앙관직의 참봉 벼슬을 하기도 하였으며 사림에서 추앙 받을 정도로 학문이 높았다고 전해진다. 1659년 향년 82세에 숨을 거두었으며 1748년에 후손들이 사당을 세워 위패를 모신 후 봄·가을로 향사를 지내고 있다.

현리는 옷마와 아랫마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짐마(박산재)와 新驛골 등 자연 부락 4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짐마는 이전 박씨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 하여 박산재라 불리며 아랫마는 조선 말기에 마을 근처 5개 현의 창고인 五面倉이 위치하게 되면서 창마란 별칭이 붙었고 이후 마을의 위아래 동네의 개념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랫마는 원래의 마을 영역이 아니라 조선말기에 마을이 확장되면서 형성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마을은 현재보다 위쪽인 박산재 근처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인천 채씨들에 의해 산 아래쪽 평지 근처로 이동되었고³⁾ 조선 말기에 이르러 더 아래쪽으로 확장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옷마를 제외한 지역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채씨들에 종속된 하배(머슴의 현지용어)나 소작농들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타지로 이주해 나가게 되고 이후 이들이 담당했던 농사일과 서낭제까지도 채씨들이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해 현리의 인천 채씨들은 유교적 지배계층의 위치에서 직접 생산자로서의 신분적 이동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산양면의 가장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현리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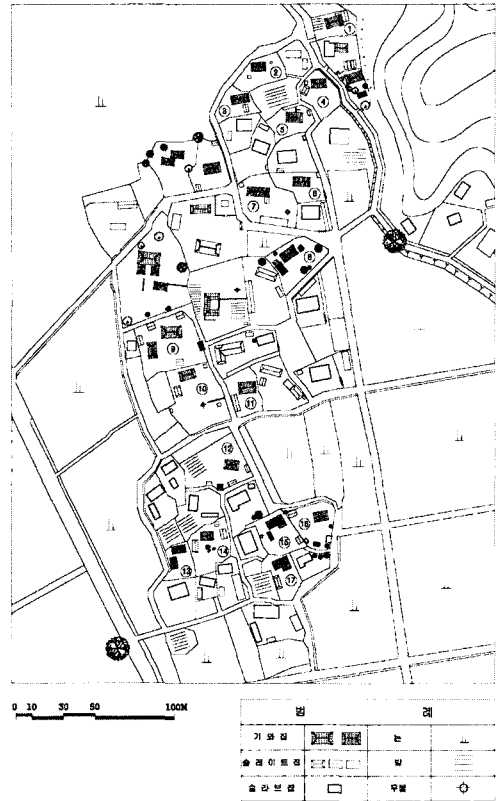


그림 1. 문경 현리 배치도

의 뒤로 산복면과 경계를 짓는 근암산과 비조산이 위치해 있고 산록이 끝나는 남서쪽의 평지에 남향으로 마을이 배치되었다. 마을 앞·뒤인 남쪽과 북쪽으로는 비교적 넓은 들이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낙동강 지류인 錦川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III. 주택의 평면 특성

1. 본채 평면 형식

채집된 연구 대상 주거의 본채는 일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한 겹집이 대부분이다. 17채의 주거중 두 채만이 ‘ㄱ자형’ 평면이며 나머지는 모두 ‘一字形’ 평면으로 강한 유형적 특성을 보인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일자형 한 채와 ‘ㄱ자형’ 한 채만을 제외한 모든 주거들이 겹집의 구성을 따르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一字形’ 이면서 예외적으로 홑집인 사례7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홑집의

3) 산록의 경사가 끝나는 부분인 옷마의 북쪽 가장자리 근처에 재실(永慕齋)과 사당 그리고 종택과 양파정 등 마을의 주요 건물들이 모두 연결해 있어 가장 오래된 지역임을 짐작케 한다.

표 1. 대상 주택의 본체 평면형식 일람표

(범례: R1: 안방, R2: 사랑방, R3: 속방, K: 정지, Kr: 정지방, L1: 안대청, L2: 사랑마루)

순번	주택평면	형식	규모 (정면×측면)	평면배열
1		一字형 겹집	3칸×2칸	
2		一字형 겹집	4칸×2칸	
3		一字형 겹집	4칸×2칸	
4		一字형 겹집	3칸×2칸	
5		一字형 겹집	3칸×2칸	
6		一字형 겹집	4칸×2칸	
7		一字형 홑집	4칸×1.5칸	
8		一字형 겹집	4칸×2칸	
9		一字형 겹집	4.5칸×2칸	
10		一字형 겹집	4.5칸×2칸	
11		一字형 겹집	3.5칸×2칸	
12		一字형 겹집	3칸×2칸	
13		一字형 홑집	4칸×1.5칸	
14		一字형 겹집	3칸×2.5칸	
15		ㄱ자형 홑집	5칸×1.5칸	
16		一字형 겹집	3칸×2칸	
17		ㄱ자형 겹집	4칸×2칸	

형식을 취하였으나 정지방과 사랑방이 집 뒤쪽으로 반 칸씩 확장되는 등 부분적으로 겹집화가 진행된 집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ㄱ자형’인 사례15 한 곳만이 완전한 홑집의 형태를 하였다. 따라서 현리에는 일자형 겹집형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리 농가의 평면은 기본적으로 정지와 안방, 안대청 그리고 사랑방과 뒷마루(사랑마루)⁴⁾가 일렬로 배열되는 영남 내륙형 민가의 평면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정지와 안대청 뒤로 다시 1칸씩의 정지방과 속방이 부가되는 겹집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주택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정지와 정지방-안방-안대청과 속방-사랑방-사랑마루 등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典刑性을 지닌다.

한편 이와 같은 평면 형태는 안동 서미 2동의 주거 중 변형된 여칸집인 황증기씨 집의 평면과 배열이 매우 유사하다. 즉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사랑방이 나란하게 배열되고 또한 정지 뒤에 위치한 정지방이 안방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이 동일하다. 그러나 사례6의 경우는 사랑방이 대청 쪽으로 폐쇄성을 띠고 외부 뒷마루로 열린 반면 황증기씨집은 그와 반대로 대청이 공간의 중심이 되는 내부지향적인 여칸집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다르다<그림 2, 3 참조>.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家勢나 집의 경제력 등에 의해 이들 공간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그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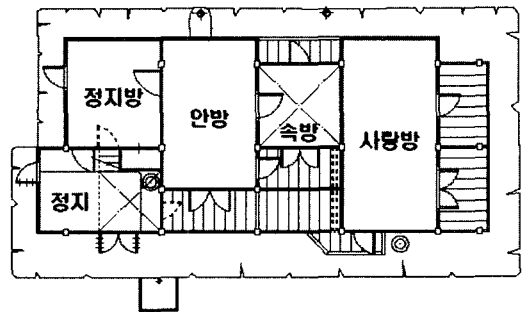


그림 2. 현리 주택 본체의 전형적 평면 (사례 6)

4) 사랑방 측면 혹은 전면으로 설치되어 뒷마루의 형식을 취하나 보편적인 뒷마루의 크기보다 넓고 매우 발달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뒷마루라 하지 않고 사랑마루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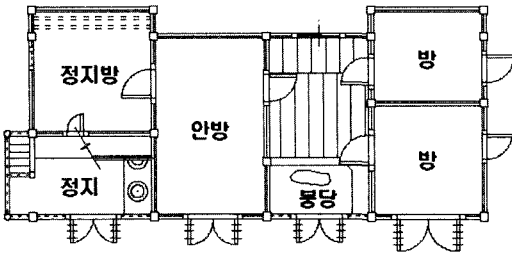


그림 3. 안동 서미 2동의 황중기씨 집 평면

경우 가장 빈번하게 누락되는 공간이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형성되는 안대청과 속방이다. 17채의 대상 농가를 살펴보면 안대청과 속방이 모두 생략된 집은 7채이며 안대청은 있고 속방만 없는 곳도 4채나 보인다. 이에 비해 정지방은 두 채에서 생략되었고 사랑마루가 없는 곳도 1곳 보인다.

따라서 현리 주택에서 공간의 생략 경향은 속방(11채), 안대청(7채), 정지방(2채), 사랑마루(1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사례15는 홑집으로 구조되어 처음부터 정지방의 구성이 불가능했으며 유일하게 사랑마루가 없는 사례13 또한 아래채에 따로 사랑방과 마루를 들여 처음부터 본채에 따로 사랑마루가 필요 없는 집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방과 사랑마루는 모든 집에서 공통적으로 갖추게 됨을 파악 할 수 있다.

속방은 대개 안방에 부속된 공간 혹은 장성한 자녀의 독립된 공간 등 일시적이고 선택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정지와 안방 그리고 사랑방처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집의 규모를 줄여할 경우 가장 먼저 생략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이때 속방의 앞쪽으로 위치한 마루도 같이 생략해 버리고 아예 집을 1칸 줄여 짓게 되면서 안대청 없는 집들이 상당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안대청이 종종 누락되는 양상에 비해 사랑마루는 모든 집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지는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이러한 사랑마루의 충실성은 다음 두 가지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여성 공간인 안방 영역 보다 남성 공간인 사랑영역을 더 우위에 두려는 주거 의식에 의해 집을 건립할 때 사랑마루만은 필히 갖추려 했거나, 또 사랑마루가 집의 가장 바깥쪽에 뒷마루 형식으로 설치되

기 때문에 안대청보다 비용을 적게 들여 쉬운 방법으로 갖출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 본채의 공간구성 및 배열의 특징

연구대상 주택들의 공간간 동선체계를 살펴보고 그 주거에 담긴 주생활 의식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공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사례6의 평면을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주택의 중심공간인 안방과 사랑방의 구성이 매우 흥미롭다. 즉 안대청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안방과 사랑방이 위치하였는데 안방은 안대청과 직접 연결되는 동시에 속방과 정지방 그리고 전면 뒷마루와도 통하게 되어 매우 기능적이고 열린 공간이 된 반면 사랑방은 안대청과의 사이에 출입문을 두지 않았다.

통상 마루가 온돌방 사이에 놓이게 되면 그 곳은 양쪽 방의 출입동선이 모이는 공동의 영역으로 이용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집 사랑방은 인접한 공간(안대청, 속방)과는 직접 연결하지 않은 반면 측면 마당으로 출입문을 두어 외부에서만 직접 출입되게 하였다.

이러한 예는 출입동선을 통해 각 공간간의 연관성을 조절한 사례로 사랑방에서 안대청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막아 안방영역과 완전하게 차단하려는 고의성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안방영역과 사랑방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경향은 현리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으로 대상주택 중 건립시기가 가장 오래된 사례2의 평면에도 보인다.

사례2에서 가장 의외적인 공간 구성은 맨 좌측칸 배열이다. 즉 전후로 2칸인 좌측 칸을 전면으로부터 1칸의 사랑방과 그 뒤로 1칸 마루가 연결하게 구성한 것이다. 원래 겹집에서는 앞쪽에 마루가 오고 뒤로 온돌방이 위치하는 반대의 구성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마루를 앞마당으로 열어두는 것이 채광·환기에 유리하고 온돌방의 동선 연결에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현리의 전형적인 질서를 따른 안방영역과는 달리 사랑방 영역은 마루와 방을 뒤집어 배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간을 거꾸로 배열한 뒤에 사랑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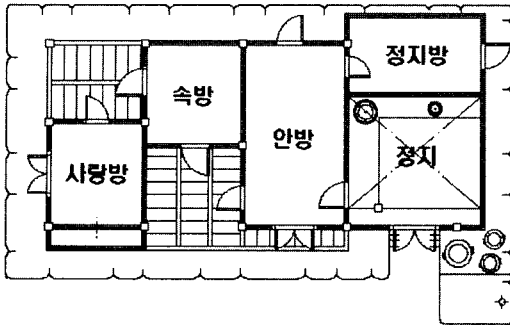


그림 4. 사례2의 본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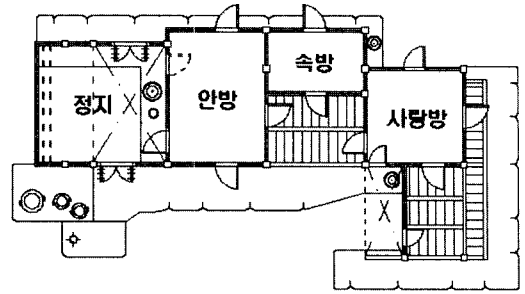


그림 5. 사례15의 본채 평면

서 안방까지 거리가 가장 멀게 출입동선을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방에는 앞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고의적으로 두지 않는 등 평면의 예외성이 다수 발견된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공간배열상의 특징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례6과 같이 사랑방을 안방에서 분리하여 남·녀의 공간을 구획하려는 의도로 이해되는데 다만 사례6이 출입문의 설치로 동선을 제어한데 반해서 사례2는 공간의 배열을 교묘하게 뒤바꾼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남·녀 공간의 분리를 시도한 또 다른 예는 사례1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집은 ‘ㄱ자형’으로 대상 농가 중 유일하게 홀집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정지 뒤의 정지방이 생략된 것 외에는 타 농가들과 공간의 배열이 같다. 그러나 사랑마루가 측면의 뒷마루 형식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사랑방 전면으로 돌출 되면서 1칸 규모의 크기가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마루의 측면을 개방해 두지 않고 벽을 쌓아 올리고 벽장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랑마루에서 안방영역을 건너다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되었다. 사랑방에서 안방영역으로의 동선뿐만 아니라 시선까지도 차단된 형식이 된 것이다<그림 5, 6 참조>.

사례7은 안마당으로의 시선을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단한 사례이다. 즉 사랑방 앞으로 부속채를 ‘역ㄱ자형’으로 직교 배치되게 하여 아예 출입대문에서부터 안마당이 건너다 보이는 것을 막았고 외부 마당이 두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나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그림 7 참조>

이는 안채와 사랑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외부



그림 6. 사례15의 사랑마루
(마루 측면으로 벽장이 설치되어 안방 앞의 앞마당이 건너다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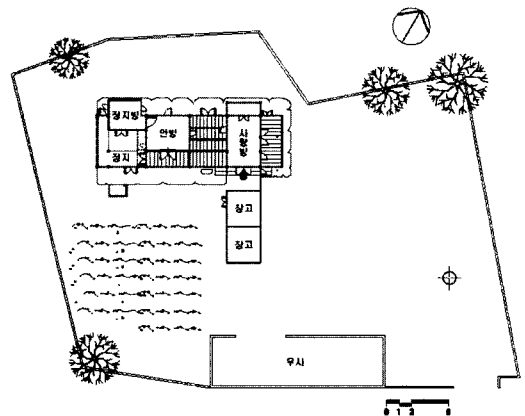


그림 7. 사례7 배치 평면도

공간(마당)을 구획하는 상류주택의 경우와 흡사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안방영역과 사랑방 공간을 나누어 남녀 공간을 구분하려는 의도는 17채의 대상농가 중 무려

12채에서 나타나는 주목되는 주거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두 영역 사이를 구분 짓는 양상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방과 안방영역 사이에 교통되는 문을 설치하지 않아 서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집(사례4, 사례6, 사례8, 사례10, 사례16)과 출입문을 두지 않음은 물론 가림벽, 벽장 또는 부속채 등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동선과 시선을 동시에 차단한 집(사례5, 사례7, 사례11, 사례12, 사례15)이 각각 5채이고 나머지 2채(사례2와 사례3)는 전형적인 공간배열에서 특정 공간을 어긋나게 배치하여 안방으로의 동선의 유도적으로 복잡하거나 길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주택들이 건립되었던 1940-1950년 대는 우리 농촌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했던 동시에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었던 시기였다. 특히 이 때를 즈음하여 현리에서 생산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던 각성반이 하배들이 마을을 떠나게 됨으로써 농사 혹은 집안 일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채씨들이 직접 생산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신분적·경제적 위기가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을 짓게 될 경우 여러 채를 갖추어 짓거나 격식을 차려 지을만한 여력이 없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잔존해 오던 유교적 관념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남녀공간의 구분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주거의식의 한 덕목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한 채로 이루어진 주거 내에서 불가피하게 공간을 둘로 나누려 하면서 이와 같은 주거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리의 주택들은 당시 사회·경제적 요인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특성화됨으로써 특히 민가 형식은 주생활과 사회적 환경이 구체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임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집 내부 구조가 둘로 나뉘게 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공간의 연관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안방영역에서는 안방과 정지를 중심으로 정지방과 속방이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를 취하면서 서로 긴밀하고 유연한 연관구조를 보이는 반면 사랑방은 방 한가운데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양분하는 구조만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 농가 17채 중에서 7채에서 사랑방 가운데 방을 구획하는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사랑방의 기능이 안방에 비하여 단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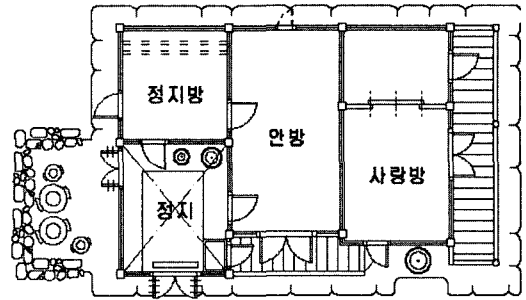


그림 8. 사랑방 사이에 미닫이문이 설치된 예 (사례12)

가족 구성원에 따라 큰사랑과 작은 사랑으로 구분하거나 접객과 취침을 위해 단순히 공간의 분리만 필요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그림 8 참조>.

IV. 주택의 배치 특성

1. 배치 및 외부공간(마당)의 특성

조사된 민가들은 대부분 一字形의 본채와 함께 부속채나 아래채 그리고 헛간채 등⁵⁾ 등 2개棟 이상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본채만으로 이루어진 집은 4채만 파악되었다.

본채 외에 별도로 건물을 따로 갖춘 13채를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인 10채에서 부속채나 헛간채를 들인 반면 거주기능을 포함한 아래채를 갖춘 집은 불과 3채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아래채도 거의 후대에 부속채를 개조하여 방을 새로 들였거나 혹은 외양간과 두지, 창고, 다락 등 수장공간으로 이루어진 건물 한쪽에만 간략하게 온돌방만을 들인 형식이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본채 외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는 추세가 거주자의 주거공간을 확대하고자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농촌주거의 특성상 곡물의 보관이나 가축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일이었음으로 부속채를 따로 갖춘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외양간, 두지, 곳간 창고 등 가축우리나 수장공간만으로 이루어져 거주기능이 없는 건물은 부속채라 하였고 온돌방이 한 칸이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아래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벽체를 두지 않고 간단한 기둥에 지붕만 올려 둔 구조물은 헛간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체에다 거주의 기능을 더욱 집약 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가족 구성원이 나 주생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 하기 위해 본체의 실구성과 공간배열이 매우 융통성 있게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평면의 구성에서 지적한 바 있는 정지방과 속방의 기능적 유연성과 사랑방의 가변적인 공간 분리는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건축적 장치였던 것이다.

한편 본체는 대지의 중앙부 뒤쪽으로 치우쳐 배치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속채의 위치는 본체 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속 채는 주로 대지의 출입구(대문) 근처나 대지의 모퉁 이 부근 그리고 가운데 마당을 비껴 가장자리에 위 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다음 넓게 비워진 앞 마당을 텃밭으로 활용하여 거의 대부분 농작물을 심 어 기르는 농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앞마당에 비해 본체 뒷마당의 경우 주목되는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사례5의 뒤안에는 외부 담장과 주택의 뒷벽 사이 에 담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담으로 인해 뒷마당이 좌우의 두 영역으로 나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 런데 사잇담의 위치가 주택의 내부 평면 구성에 맞 추어 설정된 특징이 있다. 주택의 안방영역과 사랑 방을 구획하는 경계부분에서부터 사잇담이 시작되어 외부로 이어졌는데 이는 뒷마당을 나누고 서로 건너 다니지 못하게 한 이유가 주거 내부의 평면 배열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주거 내부를 내·외의 두 공간으로 구분하여 나누 어 두고 거기에 맞추어 외부공간까지 구획하려 한 의도가 뒷마당의 분리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구체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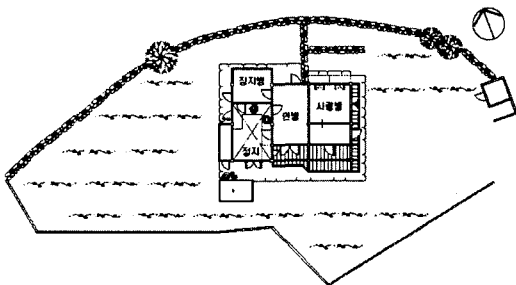


그림 9. 사례5 배치평면도

연구 대상 주택 중 과반수가 넘는 9채의 농가⁶⁾에 서 이와 동일한 뒷마당 분리의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뒷마당만을 담으로 구획한 이유는 앞마 당과는 달리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안방쪽으로 넘나들거나 침범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리 주택에는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 마당의 구성에도 內·外의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본체 좌향 및 진입구 분석

대상 농가들에서 보면 부속채나 헛간채의 경우 위 치나 좌향 설정에 있어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는 없다. 이는 본체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 고 대지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곳에 부속채가 배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본체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거 내부의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또 내·외 공간이 구분되어 동시에 수용되는 등 일반적 인 주거형식과는 구별되는 점이 발견된다. 이와 같 이 평면배열에 유교적 질서가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 해 볼 때 주택으로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본체의 좌향과 함께 진입구(출 입대문)의 위치를 분석하여 내부 평면형식과 외부동 선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보면 본체의 방위는 대다수의 집이 정 남에서 동과 서로 약 25-30° 기울어진 범위에 속해 있다. 사례14가 정남향으로 배치되었고 그 다음으로 는 10° 내외가 가장 많아 남향 선호경향이 매우 두 드러진다. 30°를 넘어가는 집은 동남쪽으로 40° 돌 아앉은 사례8이 유일하다.

사례8은 남동향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의 경계선과 나란하게 집을 앉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뒷마당과 앞 마당이 정연하게 남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집은 대지 경계선과 평행하게 본체를 배치하게 되면서 동 남향으로 치우치게 된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다수의 현리 주택들이 대지 형상과

6) 사례1, 사례5,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4, 사례15, 사 례16, 사례17 등 9채

는 관계없이 본체의 좌향이 정해짐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예이다.

현리가 자연발생적 농촌마을로 모든 대지가 구획

표 2. 본체 방위와 진입구 방향
(방위에서 +와 는 각 각 정남에서 東과 西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며 진입구 방향은 본체 축과 이루는 각도를 표시함, 본체 간략도에 표시된 굵은 선 부분은 사랑방의 위치임)

순번	본체방위	진입구 방향	
1	-15°		-80°
2	5°		-75°
3	-10°		-72°
4	-2°		-18°
5	-22°		82°
6	5°		75°
7	10°		39°
8	40°		76°
9	-10°		70°
10	-10°		43°
11	-5°		37°
12	-25°		38°
13	10°		-9°
14	0°		48°
15	30°		36°
16	10°		33°
17	30°		29°

되지 않은 매우 불규칙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들이 남향을 지향하는 것을 볼 때 대지의 형상과 본체의 방위는 그다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지가 매우 넓기 때문에 대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체의 방위가 남향 위주의 결과를 보이는 반면 17채의 대상 가옥 중 7채에서 진입구의 위치가 본체의 측면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5의 경우 82°를 이루는 등 이들이 본체의 축과 이루는 각은 무려 70°를 넘어 직각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도 본체와의 사이에 거의 40°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측면 지향의 경향이 매우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주거영역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진입구(출입대문)의 위치는 본체와 대지 주위의 도로체계와 깊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지의 두면 혹은 세면이 골목에 면해서 진입구 위치설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8채(사례4, 사례5, 사례7, 사례8,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6)의 주택에서조차 모두 동일하게 측면방향 진입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측면 진입 경향이 모두 본체의 사랑방 위치와 관련이 있음을 표를 보면 확인해진다. 17채중 무려 14채가 사랑방이 위치한 쪽으로 진입구가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주거내로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방 쪽을 거치도록 진입구의 자리가 의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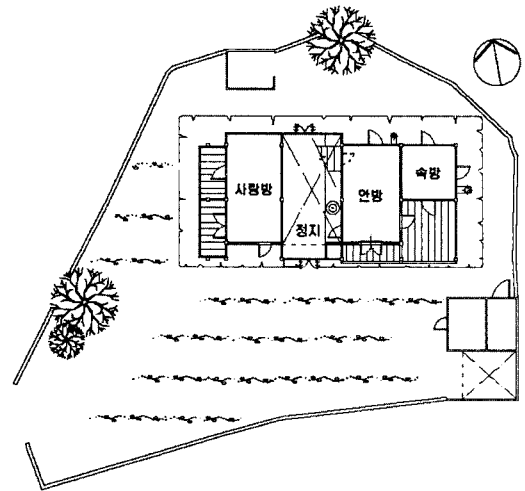


그림 10. 사례3 배치·평면도

으로 조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상류주택에서 사랑채를 대문 가까이 설치하는 유교적 내·외 공간의 배치질서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랑방과 진입구의 위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사례3을 들 수 있다. 이 집은 현리에서 유일하게 속방 옆으로 위치해야 할 사랑방이 정지 옆으로 돌아가 배열된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는 대지로의 접근 가능한 길이 유일하게 서쪽으로 접해 있는 까닭에 진입구의 위치에 맞추어 사랑방의 위치를 반대로 뒤바꾼 변칙적인 배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지금으로부터 약 50-60년 전에 지어진 문경시 현리 농가 17채를 대상으로 배치 및 평면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에게서 당시 농촌의 특수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유형화된 건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현리 농가들은 대부분 두지나 외양간, 잣간 등으로 구성된 부속채와 본채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거주기능이 있는 사랑채나 아래채를 따로 갖출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넉넉지 못한 농촌의 경제적 상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모든 거주기능을 집약시켜 여성공간인 안방과 남성공간인 사랑방을 한꺼번에 본체에 수용한 특징적인 평면구성을 보인다. 결국 이들은 정지와 정지방-안방-안대청과 속방-사랑방-뒷마루(사랑마루) 등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전형적인 겹집의 배열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이 중 뒷마루(사랑마루)와 정지방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반면 안대청과 속방은 그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지 않아 집을 줄여 지어야 할 경우라 할지라도 사랑마루와 정지방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체에 남녀의 공간을 함께 마련한 다음 유교적 내·외 질서에 따라 다시 안방영역과 사랑방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구분한 공간 배열상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대상 농가들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영역구분은 두 영역사이에 건너 다닐 수 없도록 출입문을 두지 않는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실의 배열과 출입문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양쪽 영역사이에 동선을 매우 길게 하는 형식, 그리고 벽체를 연장하거나 부속채를 교묘하게 배치하여 동선뿐만 아니라 시선까지도 적극적으로 차단한 유형 등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본체에 거주기능을 모두 집약시키게 됨으로써 기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의 가변성도 함께 요구되었는데 기능을 다양하게 바꾸어 이용할 수 있는 정지방과 속방을 두어 이에 대처한 안방 영역과는 달리 사랑방은 방의 가운데 미단이문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누거나 분리하기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부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유교적 내외질서는 외부 공간(마당)의 구성과 진입구(대문)의 위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면 마당과는 달리 평소 시선이 미치지 않는 뒷마당에 內外담을 설치하여 양분한 집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사랑 뒷마당과 안방 뒷마당으로 구분 하려 한 뚜렷한 추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대상 농가 17채 중 3채를 제외한 14채의 진입구가 본체 사랑방이 위치한 곳으로 개설되어 사랑방과 진입구의 위치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류주택에서 사랑채와 대문의 위치가 관련있게 배치되는 유교적 내·외 공간의 배치질서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주)청구.
2. 김동욱(199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3. 강영환(1999),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4. 신영훈(1986), 한국의 살림집(상), 열화당.
5. 한국건축역사학회(2003), 한국건축사연구 1-분야와 시대, 도서출판 발언.
6.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2003), 반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현리마을, 한국학술정보(주).
7. 조성기(1991),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7권 제 3호.
8. 광동엽(2002), 포천군 근대 농가의 건축적 변화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13권 제 2호.
9. 유재우(2002), 광복전후 공영주택의 평면비교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사연구 제 11권 제 2호.
10. 정병섭·광동엽(2003), 안동 서미 2동의 마을구조 및 민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14권 제 1호.